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6월 23일 (제695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절제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생리적 욕구와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등...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첫 번째 생리적 식욕의 탓에 걸린 케이스다. 에서 또한 식욕이란 생리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팔꿈치 한 그릇에 하늘의 복인 장자권을 팔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조차도 생리적인 욕구에 걸려 아들을 저주하는 비극을 초래했으며, 롯 역시 술로 인해 딸과의 불륜을 저질렀다. 어디 이것이 옛 사람에게만 있는 일인가? 청와대 모 대변인이 생리적 욕구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패가망신, 주군 망신, 국가망신을 시킨 일이 근자에 있었다. 생리적 욕구의 제동장치가 녹슨 결과다.

절제라는 제동 장치를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듯 큰 변을 당한다. 절제와 점검은 인생의 브레이크다.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마치 브레이크 오일이 충분해야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삶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사람들을 보라. 욕심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은 아간, 황금과 몇 몇 벌에 눈이 멀어 문둥병에 걸린 개하시, 명예욕에 끌려 예수를 판 가롯 유다와 사울,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보라. 또 현재 진행 중인 중동(中東) 장기집권자들의 결국을 보라. 성령의 열매 중 절제의 은사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절제가 없으면 사고 난다는 의미다.

건강할 때 보약 먹이라. 즉 잘 나갈 때 조심조심 절제하고 죽한 줄 알라. 그것이 끝까지 잘 가는 길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종이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

지난 18일, 배방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된 일일부흥집회에서 목사님은 임 목사를 비롯한 충청권 목회자들과 배방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쟁에 이기려면 네스타일을 버리고 주군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제로 '주인의 뜻을 따르라'고 강조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군사로 부름 받은 자는 부름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배방교회 임 목사를 비롯하여 여기 참석한 많은 제자들 모두가 종

대노했습니다. 영탄을 몰라 하던 종들은 주인께서 잘못 말씀하신 걸로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종만이 거꾸로 심은 것을 보고 주인은 그에게 어찌 혼자 거꾸로 심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모든 종들 앞에 그를 세우고 모든 전답을 도맡는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종들입니다. 주인에게 필요한 일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거스르는 영적 반란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저야하는 피하고 싶은 잔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더니 어떤 영광을 얻으셨나요? 부활의 영광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이론과 지식, 경험을 버리세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자신의 학식을 배



배방예수중심교회 일일부흥집회(2013년 6월 18일)

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생각이나 뜻도 모른 채 어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자기가 주인이지 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밭에 묘목을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묘목을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곤 주인은 급한 일이 있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당한 종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아마 주인이 급하게 말씀하다 보니 잘못 일러준 것이라 판단하곤 모두가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종만이 주인의 말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종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밭을 둘러본 주인은

생각, 주인의 뜻, 사상, 철학을 이해할 뿐 아니라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종이아말로 주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묘목을 똑바로 심은 종들처럼 주인이 잘못 말했다고 가르치려 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견 그런 뜻이 아니냐 하며 왜곡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가르치려 듭니다. 이는 목회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사장의 뜻을 모르고서야, 오너의 말을 따르지 않고서야 어찌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청와대 모 대변인 사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군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제 본능대로 행하다 패가망신을 넘어 국가 위상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왕의 뜻을 거스른 자가 과연 어찌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설물로 여긴 뜻을 알고, 남이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 아닙니까? 핍박을 받으려면 받는 겁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라면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 생각과 이론이 필요합니까? 감독의 지시에 따르는 자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 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배방예수중심교회 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이 땅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멕시코 집회

▶일시: 6월 25일(화) ~ 7월 9일(화) ▶장소:알바라도 & 마쿠스파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왕하4:1~7)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

오늘 본문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느라 별이를 제대로 못했던 집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주가 와서 빛 대신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화급히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왕하4:2)고 말합니다. 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고, 아들과 방에 들어가 문을 건 채 기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와 아들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을 따르고 따라도 줄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을 때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니 엘리사는 그것으로 빛을 갖고, 나머지로는 생활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나?’,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보니 어느덧 낮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배고플 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에게 막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빈들에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

단점을 보완하려 말고 너의 장점을 키워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몇 떡 개나 있느냐?” (막6:38). 안드레가 보니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며 “주여,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 오천 명이 먹고 부스스기가 열 두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아이에게 있는 것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나?”

물론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썩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심지어

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마25:26)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준 것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준 것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준 건강을 통해, 우리에게 준 재능과 재물을 통해,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나?”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나?”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그



것을 주님께 내밀 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우리 삶에 나타내십니다.

가시릴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하자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4:13). 나는 늙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출4:2)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40년 동안 양철 때 사용하던 때 묻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증거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으며,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입이 둔하여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출4:14)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형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건강치 못하데요.”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말해왔습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는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한 달란트를 통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별 볼일 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물고

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기름 한 병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이라도, 손때가 묻은 지팡이 같이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기는 기적 말입니다.

닉 부이치지는 사지가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하여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경비 아저씨가 그를 한 모임에 초대했는데, 거기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때 닉 부이치지는 자신에게도 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나도 가진 게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많은 강연을 했고, 사지도 없지만 한계도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보여줬으며, ‘사지 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해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며 도전

과 희망의 행복 전도사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계를 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부자집 딸로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누구처럼 배우지도 못했다.”, “나는 누구처럼 잘 생기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생각지도 마세요. 분명 당신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만 당신이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 여겨 방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이 태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열정,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 담대함을 통해 오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예루살렘 교단을 이루신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9:4). 남에게 있는 큰 재주보다 내게 있는 작은 재주가 낫습니다. 남이 가진 1억보다 내게 있는 100만원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내 능력, 내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목도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었고, 위인도 한 때는 보채는 아이였음을 아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나?” 그 때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분량만 내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린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다는 역설이다. 나의 경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나아가 주변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내 건강, 내 경제, 내 영성을 잘 돌아보지 못해 나 빠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나쁜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평상시보다 오버해서 뛰어다녔다. 저녁이 되니 몸이 파김치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고 짜증이 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괴롭다. 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나 자신의 영·혼·육을 잘 돌보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요, 남을 배려하는 것임을 그날 깨달았다.

내 얼굴, 내 의상은 내 것이 아니고 상대의 것이기에 나에게 신경 쓰는 것이 곧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남을 위한다고 다 퍼주고 남루하게 사는 것은 남에게 신경 쓰게 하는 일이 됨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구절을 볼 때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항상 먼저 생각되는 것이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곡이 먼저 된 다음에 썩어야지, 썩정이나 반쯤 영근 것이 썩으면 썩은 냄새만 풍기 뿐이

니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썩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나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썩어야, 그리고 헌신해야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요한복음 3장 29~30절에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했다. 아무나 쇠한다고 예수가 흥해지는 것이 아니다. 갓 추어진 사람이 쇠해야 남을 흥하게 할 수 있다. 세례요한처럼. 그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으리라.

남을 위하고 싶으면 먼저 나를 위해야 한다. 나부터 갖추어야 한다.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 전할 수 있다. 내가 가뭇가물한데 누구 알길을 비취줄 수 있겠는가? 내가 기뻐야 남에게 기쁨을 주지, 내가 어두운데, 슬픈데 누굴 기쁘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고 하셨다. 나부터, 그리고 네 집부터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 성령 임하는 땅 끝부터 가서 증언되라 하지 않으셨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제대로 서지도 않았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내 교회를 부흥시켜 튼튼한 성장을 이룬 후에 전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세계로 선교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본 교회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모습이 정답이다. 아무리 공들인 탐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퇴락하여 무너지기 때문이다. 인생을 공들여 쌓은 우리의 삶, 건강, 영성, 목회, 사업, 가정도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야 그 탐이 든든히 서가고, 그 나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내가 일생을 공들여 키운 나무의 결가지가 죽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늘 돌아보아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참된 이타적인 삶이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실제로 남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의 건강, 가족, 목사님, 성도, 기업, 나라...

이시대 목사

간절하고 분명한 기도가 분명한 응답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교단소식::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을 돌며 지역 각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병든 자를 고쳐 주리라는 것이다. 20년 넘게 목사님을 지켜보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던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부산 방문은 목사님의 선포가 가시화 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목사님은 지난 6월 12일 부산교회를 방문, 수요예배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시대에 뒤떨어졌느니, 쉬운 길을 두고 어렵고 늦게 가

니 하는 소리도 들지만, 그러나 단언컨대 나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오늘 지구촌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믿고 기도한 대로 그 목표를 향하여 물러섬 없이 정진해온 결과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나를 믿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땅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듯,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만 있다면 응답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는 것을 믿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믿음을 지키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롬4:17-24). 여러분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우리는 10월 8, 9일에 있을 부산

집회 장소를 보기 위하여 부산과 경남 일대 목사님들과 함께 모두 BEXCO로 향하던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다. BEXCO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사회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틀에 박힌 목회 방식에서 벗어나야함을 가르치셨다. 목사님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 간접자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구상하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셨다.

부산교회 이구원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 삭발을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12명의 제자(경남노회목사들)를 데리고 다니시며, 처세의 지혜와 목회 성공에 유익한 말씀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라 여념이 없으셨다. 이동 중에도 11인승 버스에 비좁게 앉아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이에 또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경청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보았다.

송초현 전도사



귀를 기울이세요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지만, 주어진 모든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갖은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와 철도 2800마일이라는 엄청난 재산의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자가 찾아와 김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굳이 제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제 3가지 신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 것, 둘째는 부지런히 일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슨의 이야기를 듣고 난 기자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슨은 웃음 띤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배움의 끝은 실천임을 총회장 목사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제 5회 예수축제 (대구예수중심교회)

지난 6월 15일 토요일,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이라는 주제로 제5회 예수축제가 열렸다. 2011년부터 시작된 예수축제는 지교회 중·고등부 및 청년부의 연합과 부흥을 꿈꾸며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네 번의 예수축제는 지교회에게는 광야 중에 만난 만나와 같은 예배였다. 침체되어있고 무너져있던 공동체가 결속을 되찾았으며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예수축제를 앞두고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절실함이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

며 준비를 시작했다. 대전, 대구, 부산 3개 지교회와 연합찬양단을 꾸려 두 달 동안 대전, 대구를 오가며 헌신하며 준비하였고, 각 지교회에서는 기도과 영혼 초창에 힘을 쏟으며 합심하여 노력하였다.

당일 예수축제는 연합찬양단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었다. 부산예수중심교회 이은총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은 대구예수중심교회 이월드 전도사의 인도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다. 이어진 이월드 전도사의 설교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청년, 어린아이, 베드로, 바디매오의 모습을 예화로 절박한 신앙을 갖자는 주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절실함이 없었던 부자청년과 다르게 바디매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설교 후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메세지가 이어졌다. 청년들이 꿈을 갖고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따뜻한 격려였으며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이었다. 뒤를 이어 대구와 부산교회에서 준비한 워십, 대구교회 정세현 형제의 특송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연합찬양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예수축제의 가장 큰 열매는 연합과 소망이었다. 2년여 간의 교제와 사역으로 연합한 3개의 지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새 소망이 생겼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더 많은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침체된 지교회들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다. 예배에서 승리한 우리는 무엇이 할 수 있다. 우리 예배에 목숨 걸고 달려가자.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김강산

대전예수중심교회

Good News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앤 그루펠은 태어날 때부터 연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외모 콤플렉스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세상이 자신을 버렸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단 한명의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던 중에 정력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헤드폰을 쓰고 기계음이 나는 쪽의 손을 드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교실 가운데에 칸막이를 설치하

고 칸막이 건너편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는데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서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지 않고 울먹이며 “선생님 정말이세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심정을 알아차린 선생님이 “그럼,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

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달콤한 유혹-설탕

직장인 미스 김은 아침에 일어나 쥘을 바른 빵과 과일맛 요거트를 먹고 출근한다. 출근하자마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업무에 돌입한다. 점심식사는 매콤달콤한 짬뽕을 먹고 후식으로 휘핑크림 올린 카라멜마끼야또를 마신다. 그리고 오후에 간식으로 떡볶이나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다. 과연 그녀가 오늘 먹은 음식 중 설탕이나 과당의 양은 얼마나 될까?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설탕 소비량은 26kg입니다(2009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75k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설탕도 1/3공기를 먹을 셈입니다. “설탕 그렇게 많이 먹겠어?”라며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의심하지 않은 사이 먹게 되는 설탕의 양은 의외로 엄청납니다. 물론 단맛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단맛은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

위를 활성화시키며, 긴장감, 스트레스를 줄여줘 기분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탕을 ‘나쁜 식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탕의 좋은 효과는 일시적이며, 설탕을 과잉 섭취할 경우 비만을 유발하고, 뇌를 마비시켜 식탐을 부추기는 등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올라갔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찾는 초콜릿이나 사탕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뇌의 중독중추를 자극해 단 것을 계속 먹게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뇌가 단맛에 길들여져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

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단맛을 물리치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식생활로 교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단맛 외에 다양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효소액, 과즙, 꿀 등으로 설탕을 대체합니다. 같은 과당이라도 당 외에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 좋으며, 당뇨병자들에게는 설탕 대체 감미료를 이용하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스파탐(제품명: 화인스위트, 그린스위트), 수크랄로스 등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청량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단맛을 찾는 것 보다는 운동, 심호흡하기,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등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느껴봅시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Q&A

Q: 교구에서 구역장 직분을 받고 3년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역장 직분도 내려놓고 교구에 배도 나가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는 남다른 고민과 어려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고전10:13).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하여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보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 하다보면, 잘 될 때는 교만해질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낙담하여 침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구역장님이 이전처럼 물질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고 더욱 더 충성하셔서 큰 승리의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고 습관을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고 성품을 거두고

성품의 씨를 뿌리고 은령을 거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